

해외동향 : 미국

클린턴, 국가 과학기술심의회 첫소집

1994년 6월 30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4명의 국가 과학기술심의회 위원들을 처음으로 소집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이 11시 30분부터 30분간 회의를 주재하고 나서 떠난 후 다시 고어 부통령의 주재로 45분간 회의를 속개하였다. 이는 1993년 11월 23일 국가 과학기술심의회가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이래 처음 개최된 것이다. 소집 통보 기간이 불과 이틀도 채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들(각료들, 청·국장들, 백악관 고위관직들) 중 9명은 부차관들이나 한 직급 낮은 관료들이 대리 참석하였다. 이번 심의회는 75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정부의 R&D 자산의 지출 우선 순위를 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관으로서 아홉 개의 위원회 활동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목적을 가졌다.

이들 위원회(괄호 안은 위원장)들은 (1) 보건, 안전, 그리고 식품 연구개발(보건과 인적 자원 서비스성 차관보) (2) 기초과학과 공학 연구(국가과학재단장과 국립위생연구소장) (3) 정보와 통신연구개발(국방성, 국방연구와 공학의 장) (4) 환경과 천연자원 연구(상무성, 해양대기국 차관) (5) 민생 산업 기술(상무성, 기술국 차관) (6) 교육과 훈련(교육성 부차관) (7) 운수 연구개발(운수성 부차관) (8) 국가 안전보장 연구개발(국방성 차관) (9) 국제적 과학, 공학, 그리고 기술 연구개발(국무성 카운셀러)로 구성되어 있다.

가시적인 위원회 활동으로서는 워싱턴에서 2월 초 이틀 동안 300여 명의 저명한 과학자, 연구기관장, 연방정부 관료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던 「과학정책 공개 토론회」와, 3월 28일에서 30일까지 미국 과학학술원에서 175명이 학계, 산업계, 그리고 비영리 부문 단체 대표들이 참여한 「환경과 천연자원 연구개발에 관한 국가적 공청회」가 있었다. 또한 대통령이 '95년 2월 의회에 요청할, 1996년 회계연도 중 연방정부 기관들의 연구개발 예산을 각 분과 위원회가 심사한 보고서를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에 제출하였다.

이번 심의회에서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기초와 응용연구에 적극 투자해야 함을 역설한 후 회원들의 과학기술 활동 보고를 들으면서 전략적 차원의 토의를 했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자주 열리면서 참석자가 최고 우선 순위를 두는 국가 안전보장회의와는 달리 (이론상 대등한 위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과학기술심의회는 대통령의 바쁜 일정 때문에 8개월 만에 처음 열렸을 뿐만 아니라 9명의 위원들이 빠져 대리 참석할 정도로 참석자가 우선 순위를 낮게 두었다는 점에서 이 심의회 앞날이 순탄할 것만 같지는 않다.

\* Source : Science, 2/11, 3/25, 7/28(1994)

New Technology Week, 4/4(1994)

\* 미국편 담당 : 權龍洙(동향분석연구실)